



속보: 2011년 12월 28일

CUOMO 주지사, 뉴욕 주민을 위한 세금 감액 조치

새해부터 58년만의 최저 과세율 발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중산층을 위해 1월 1일부터 58년만의 최저 과세율을 적용한다는 조치와 함께 카운트다운 시계를 주지사 웹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새로운 과세율에 대한 정보와 카운트다운 시계를 보려면 <http://governor.ny.gov>를 방문하십시오.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은 58년 만에 가장 낮은 과세율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체와 주민에 대한 인하된 세율이 1월 1일부터 유효하게 되면 400만 명의 뉴욕 중산층에게 세금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이 함께 카운트 다운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초에 Cuomo 주지사와 주 입법 기관 책임자들은 일자리 창출과 과세 체계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세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세율 구조에서, 총 4백4십만의 뉴욕인들은 중산층 납세자들을 위한 6억9천만달러의 공제를 포함하여 감세를 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납세자는 세금공제를 받거나 또는 전년도의 세금고지서와 비교시 변동사항이 없게 됩니다.

새로운 세금 계층 구조는 다음과 같이 재조정됩니다:

소득 수준	예전 세율	새로운 세율
\$40,000 에서 \$150,000	6.85%	6.45%
\$150,000 에서 \$300,000	6.85%	6.65%
\$300,000 에서 \$2백만	7.85% - 8.97%	6.85%
\$2백만 이상	8.97%	8.82%

또한 이번 과세 개혁의 일환으로서 Cuomo 주지사는 과세 체계를 바꾸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적 변화를 위해 뉴욕주 과세 개혁 및 공정 위원회도 결성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법인세, 판매세, 개인 소득세 과세를 포함하여 뉴욕주 과세 정책에 대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입니다. 검토에서, 위원회는 세금 허점을 없애고, 관리 효율성을 장려하며, 세금징수 및 집행을 강화할 방법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

추가 뉴스는 www.governor.ny.gov 에 있습니다.
뉴욕주 | 행정실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